

※ 일본 금융기관(JBIC 및 메가뱅크)의 북미 셰일가스 관련 사업 지원 방침에 관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관련 기사를 정리한 자료임

\* '14. 8. 7자, “北米シェールガス事業、3メガ銀など1兆円融資”

## 일본 금융기관 북미 셰일가스 사업에 대규모 지원 예정

(2014. 8. )

동경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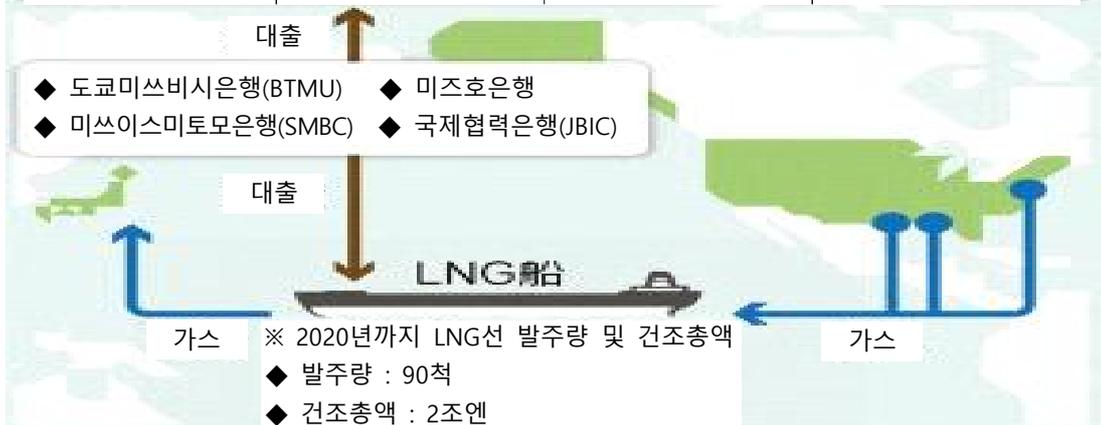
□ 일본 금융기관\*은 2017년도부터 북미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시작되는 셰일가스 관련 사업에 총 1조엔 이상을 지원할 전망

\* JBIC 및 메가뱅크(도쿄미쓰비시[BTMU], 미쓰이스미토모[SMBC] 및 미즈호)

○ 또한,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LNG선 건조자금도 1조엔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일본의 셰일가스 수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
### 일본이 수입예정인 북미 셰일가스 관련 사업

프로젝트명	카메론 LNG	프리포트 LNG	코프포인트 LNG
참가기업	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	오사카가스 중부전력	스미토모상사 도쿄가스
총사업비	1조엔	5,000억엔	3,800억엔
대출예정액	7,500억엔	3,700억엔	미 정
가스수입량	800만톤	440만톤	230만톤
사업장소	루이지애나 州	텍사스 州	메릴랜드 州



\* 자료원 : 니혼게이자이신문

- 일본기업이 출자에 참여하고,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대일 수출 허가를 받은 사업은 총 3개\*로 2017~18년부터 수입이 개시될 예정임.

\* 카메론 LNG / 프리포트 LNG / 코프포인트 LNG 프로젝트

- 우선, 일본 측 대주단은 최근 카메론 LNG 사업에 대해 대출기간인 16년 동안 총 75억달러(7,500억엔)를 분담하는 협조융자 방식의 지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.

- JBIC이 25억달러, 메가뱅크 3곳을 포함한 일본 내외 29개의 민간 금융기관이 50억달러를 분담할 예정으로 민간 지원분 중 20억달러는 일본무역보험(NEXI)이 대출보험을 지원할 예정

- 또한, 프리포트 LNG 사업에 대해서도 총 37억달러(3,700억엔)를 협조융자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바, 금월 중 지원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.

- JBIC이 26억달러, 메가뱅크 3곳이 11억달러를 분담할 전망
  - 코프포인트 LNG 사업은 아직 지원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나, 일본 금융기관이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일본 금융기관은 북미 셰일가스의 수송에 필요한 LNG선 건조자금도 지원할 전망인 바, 총 대출액은 1조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

- 북미 셰일가스의 대일 수입에 따라 2020년까지 수송에 필요한 신규 LNG선 발주량은 90척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, 건조비도 2조엔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임

- 상기 북미 셰일가스 사업이 원활하게 가동될 경우, 약 1500만톤('13년도 연간 수입량의 약 20%)의 LNG를 20~30%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  -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정지로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 사상 최대인 7.5조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조달 가격 경감 및 조달처 다변화가 중요 과제로 부상함.
  
- 일본 금융기관은 외국계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쉬운 상황임. 향후 일본기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해외프로젝트도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.
  - 현재까지 일본 금융기관의 자원개발 관련 최대 협조용자 건은 '12년 호주 Ichthys LNG 프로젝트로 총 200억달러를 지원